

독 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령스님께 여쭙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 보낼곳: 우 110-734 서울 서종로 안국동 175-87 안국빌딩 6층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 인터넷: www.hanmaum.org 또는 한마음 선원 ● FAX: (031)470-3116



길을 묻는 이에게

제610호 현대불교
서기 2007년 1월 10일(음력 11월 22일) 수요일
법공양 페이지

B13

진짜 길잡이는 여러분 마음속에 있습니다

새해를 맞이해서

문 새해를 맞이해서, 묵은 마음들을 털어내고 자성의 불을 밝혀서 당당한 자유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마음의 불씨를 띄워 주십시오.

답 올 새해에는 여러분께서 한마음의 도리에 더욱 정진하셔서 가정에 병고 액난이 없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웃음을 잃지 않고 열심히 사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살아가자면 좋은 일도 있고 언짢은 일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인간뿐만이 아니라 만물의 살림살이가 다 그러합니다. 우리 가정만 그런 게 아니라 날아다니는 새도 그렇고, 기어 다니는 벌레도 그렇고, 우리 인간도 역시 그렇고, 고통이라는 것은 언제나 뒤따르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고통도 슬픔도 괴로움도 아닌 그 가운데서 내 마음을 발현해서 자유스럽게 살 수 있게 해야겠지요. 하여튼, 아마도 제가 말을 많이 했다면 많이 했고 안 했다면 안 했을 것입니다. 말하는 대로 없애 버리면서 다시 생(生)하고, 다시 생하면서 또 없애 지곤 합니다. 실 사이 없이 돌아가는 이 반복 속에서 인간이 됐다면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문제의 해답을 꼭 주시길 바랍니다.

부처님께서 “너부터 완성해야 내 풀수도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 돌아가는 게 팔만대장경이니 이 세상을 다 깨달을 수 있느니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듯이 우리가 모든 점에 있어서 통달하지 않는다면 벗어날 수가 없고 벗어날 수 없다면 우선 죽어서라도 지금 현재 의식 그릇대로 남는 것입니다. 사람으로만 그대로 있는 게 아닙니다. 세상 만물이 허무가 아니라 무상(無常)이라고 했듯이, 이 세상에 태어나면 부처지

그러니까 자기 한마음으로서 모든 것을 주인공에 맡기고 ‘거기서밖에는 화목하게 할 수 없다. 거기서밖에는 병고를 낮출 수 없다. 거기서밖에는 액난을 물리칠 수 없다. 유전을 물리칠 수 없다.’ 하고 믿고 모든 일체를 다 구멍 없는 구멍에 맡겨 놓고 작업을 하실 수 있다면, 그것이 화목을 가져오고 사랑을 가져오고, 이타를 안 가져오고, 공부 안 하는 애들도 공부를 잘하게 되고, 정신력이 아주 부쩍해지고, 모든 물리가 터지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이끌어 나갈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자연히 행복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새해에는 더욱더 분분해서 앞으로 자녀들을 키우고 가정을 이끌어 나가는 것도 그렇고 또 병고액난에 휘달리는 것도 그렇고, 항상 말했지만 세균성이나 영계성 또는 유전성 염보살 인과상, 이런 것을 다 여러분이 처리하고 넘어갈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된다고 봅니다.

부처님은 진짜 계시나요?

문 스님, 저는 어린이 법회에 다니면서 동생과 싸움도 하지 않고 부모님 말을 잘 듣는 아이입니다. 그런데 제가 요즘 궁금한 것이 하나 있어요. 저를 한번 돌아봐도 선원에 가서 절을 할 때 그냥 할 때도 있지만 마음에

다시 올라가고 이래도 사람들은 모른다 이거야.

다 깨지면 어떻게 사시나, 다시 재생을 해서 나오시나 이러는데, 보니까 재생을 해서 나오시는 게 아니에요. 그냥 찰나찰나 화해서 여러분에게 이익을 주기 위해서 나타나시고는 또 화하지. 상대방은 누군지도 모르지만, 그냥 누군지도 모르게 그 사람을 일으키기 위한 방편으로써의 모습이 되지. 그러면 상대방이 모르지. 지팡이 짚고 다리를 질질 끌고 가시다가 어떤 사람이 쓰러져서 있으면 “아이, 일어나!” 그러면서 다리를 이렇게 이렇게 치니까 그냥 일어났어. “다리 인제 안 아픈가?” 하니까 “안 아픉니다.” “그럼 어서 가. 여기서 이렇게 쓰러져 있으면 열여 죽어. 얼어 죽진 않아야 공부를 하지.” 그래서 고맙다고 인사를 하려고 돌아서니까 없어졌더라 이거예요. 다리를 질질 끌고 다니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금

운데 팔죽이나 한 그릇 먹고 가라.” 하고 자꾸 권하니까 들어가서 안 먹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방편으로 먹어야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걸 먹는데, 방편으로 먹는 건 풍도 안 누죠? 풍을 만들어서 누면 그건 방편도 아니고 나한테 아니죠.

그대 그렇게 해서 불씨를 얻어 가지곤 갖단 말입니다. 가서 아궁이에다가 불을 내 놓고는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부엌에서 불 소리가 나거든요. 그대 스님네들이 나가 보니까 아궁이에서 불이 활활 타거든요. 그래서 그날 밤에 팔죽을 쑤어 가지고는 배고픈 걸 다 면했죠. 옛날에는 팔죽을 쑤다가 그 맑은 물을 떠서 무명 영가들, 즉 말하자면 사람들만 무명 영가가 아니니까, 무명 영가들을 위해서 다들 끼얹어 주고 그랬는데 그 이듬해 봄이 왔어요.

그리고 그, 귀찮아서 어떻게 의식을 다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길을 가다가 소 눈을 봐도 한 찰나에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런 얘기도 있죠. 어떤 스님이 깨우려서 영 일을 안 하다가 소가 뺨 답니다. 그런데 스님네들이 향나무를 못 얻어서 마루를 못 놓고 있는데 거기에 향나무를 심어다 주고 죽었다고요. 간략하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다시금 재생이 돼 가지고 스님이 됐다고요. 그 입산한 사람이 10년 후에 “아, 내가 어머니 아버지라는 인연을 맺고 다시 안 나와도 될 것을, 다시 안 나오고 자네들을 만나도 될 것을 인연을 맺어서 또 이렇게 서 있는 게 아주 귀찮게 돼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내 모습은 물질계고 모습이 있는 그 자체가 바로 머리에 자동적인 컴퓨터가 있다는 증거라는 것을 꼭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고 질질 쫓 생각해서 실천해 보시면 살아나가는 데 아주 유익하고 좋을 겁니다.

부끄러움 없는 불자가 되려면

문 부처님께 예불을 올리다 보면 ‘지심정제 공양 서건동진 급야해동 역대전등 제대조사 천하중사 일체미진수 제대선지식’이란 대목에서 참으로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인도와 중국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부처님의 뒤를 이어 진리의 등불을 전해 오신 조사와 종사,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선지식들께 지극한 마음으로 머리를 숙이면서 공양 올립니다.’ 라고 올줄 때마다 그토록 어렵게 구한 도인데 나의 삶은 과연 어떤가 하는 생각 때문에 스님, 정말 부처님과 제대선지식께 부끄러움 없는 불제가 되려면 어떠한가요?

봄이 와서 주지 스님이 저 아래 마을에 내려가니까 뭐라 그러느냐 하면 “아니, 풍자를 내려보내서 불씨를 얻어 가시더냐 왜 불씨를 안 주십니까?” 하더라고요. 불씨를 얻어 가면 불씨를 꼭 갖아야 되거든요. 왜 불씨를 안 주시냐고 하니 주지 스님이 “저희는 그런 예가 없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 예가 없다고 하니까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래 주지 스님이 올라와



고통도 슬픔도 괴로움도 아닌

그 가운데서 내 마음을 발현해서
자유스럽게 살 수 있어야 합니다!

고 변해지고 죽고, 천차만별로 변화돼 가고 이렇습니다. 그것은 허무가 아니라 무상이겠지요.

한마디 언급할 것은, 그전에도 얘기했지만 천체우주의 근본은 인간의 마음의 근본에 직결돼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돌아가는 이치가 인간 마음의 근본에 가설이 됐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 몸이 흙덩이처럼 우리 몸속에 있는 그 생명체들은 바로 별성과 같은 거죠. 그러니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색(色)은 공(空)하고, 공한 것은 색이나라.” 이렇게 말씀하신 그 뜻을 아십니까? 항상 여러분한테 말씀해 드렸고, 부처도 없고 중생도 없는 까닭은 무엇인지도 수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여름도 없고 겨울도 없는 까닭은 뭐냐고 또 묻고 그랬죠. 이것이 무슨 까닭이나, 중생도 없고 부처도 없는 까닭 말입니다. 궁했기 때문이죠.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부처님의 마음으로서, 동방에는 아축으로 이들을 지어 놓고 서방에는 아미타로 지어 놓고, 사바세계는 관세음으로 지어 놓고 지천국에는 지장상으로 지어 놔단 말입니다. 이들을 부처님의 마음입니다. 그게, 그러나 그뿐만이 아니라 천백억화신의 이름이 다 부처님의 마음인데 어찌 여러분이 그 말만 듣고 이 이름에다가 빌고 저 이름에다가 빌고 그렇게 합니까? 그러다 보니 여러분의 참마음은 발견하지 못하고, 질질질질 끌려가면서도 자기를 완성 못하고 항상 해매고 있는 이런 실정이지요.

그뿐입니까? 지금 보십시오. 전 세계를 불 때 전쟁이 일어나고 공해가 심각해져서 기상이변이 일어나는 것들이 다 욕심이 과해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니 우리 자신이 착이 있으면 욕심이 불고 욕심이 불으면 일을 저지르는 거죠. 너무 과한 욕심은 부러지 마십시오. 자녀들을 키우는 데도 여러분이 모범이 돼야 하고 또 사랑할 줄 아는 그런 능력을 키워야 됩니다. 우리가 이 도리를 모른다면 자녀들은 자녀들대로 빛나고 그대 등처럼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큰일이 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서 한두 가지의 꼭 마음을 내거든요. 그런데 저 뿐만 아니라 저의 친구들도 다들 한두 가지씩은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절을 하는데 정말 부처님께서는 진짜 계시는지 그것들을 다 듣고 다 이루어 주시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그냥 간아서 절만 받으시는 게 아닌지 하는 생각도 들고요. 스님, 저의 궁금증을 꼭 풀어 주세요. 네!

답 우리 에너지가 불(佛)이고 불성은 바로 에너지야. 에너지 주장자. 그래서 밤이면 에너지를 조성하고 낮이면 그 조성한 에너지가 쓰이고 이러지. 이게 현실이거든. 우리 어린이가 어려서 이해가 가지 않을지 모르지만 이 모습들을 가지고 살면 얼마나 살겠니? 생각해 보라. 그런데 단 일 분이러도 어디 앉아서 참 즐겁게 한번 한 발을 떼 봐 봤나? 한 발을 참, 감이 없이, 때 놓은 사이 없이 때 놓을 수 있어야만 극락이거든. 그런데 극락이라고 좋다고 할 게 없다 하는 걸 말하고 싶어, 또.

전자는 부처님 하면 다 그냥 저렇게 앉아 계시는데 참 부처님이 장사기구나! 부처님은 참 좋았잖아 이렇게 생각했는데 말이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야. 너무도, 어린애들 기를 때 밀쳐서 주고 코 찌고 하면서 하나에서부터 열까지 심부름하는 어른과 같아. 그런데 부처님이 저렇게 앉아 계시기만 하니까 그냥 우습게 생각이 되지. 근데 우습게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 이 마음공부 하는 사람들은 대략 다 알겠지만, 밤이면 저런 데로 돌아서 이렇게 사람의 기척이 있으면

방 없어졌느냐는 얘기도. 그건 화하니가 그렇죠.

그리고 우리 어린이뿐만 아니라 신도님들을 위해서 요거 한마디만 더 하죠. 옛날에 산에서 비구 스님들이 공부를 하고 계셨는데 동짓날이 돼서 팔죽을 쑤게 됐어요. 팔죽을 쑤려고 하니 불씨가 꺼졌더라고요. 옛날엔 불씨를 꺼뜨리지 않아야지 불씨만 꺼뜨렸다면 하면 공사가 벌어지고 야단나. 근데 그 불씨를 꺼뜨려 버렸다 이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눈이 그날 산더미처럼 와서 스님네들이 영 불씨를 얻으러 갈 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할 수 없어서 집 안에 들어와서 그냥 굶고 있는 데에 나한 방에서 말입니다. 나한이 있는 방에서 제일 조그만 동자 나한이 나왔어요. 나가서 불씨를 얻어 온 겁니다. 불씨를 얻으러 가니까 “아 참, 이렇게 눈이 많이 왔는데 어떻게 이렇게 조그만 동자가 왔느냐?” 그러니까 “행자는 스님네가 말씀하시는 대로 항상 그 말씀을 어기지 않고 해라만이 행자 노릇을 제대로 하는 겁니다.” 하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불씨를 안 줄 수가 없죠. 그래서 “애, 추

의 입술에 붙은 죽을 씹어 주면서 눈물을 한없이 흘렀다는 얘깁니다.

우리가 살면서 별의별 일이 다 생기고 그러지만 어떠한 일이라도 여러분의 마음먹기에 달렸습니다. 마음을 먹기에 달렸. 마음은 너무 많아서 없는 게 마음입니다. 부처도 없는 게 부처죠. 어떻게 있는 게 부처입니까? 부처가 너무 많아서 없는 게 부처다라고 했습니다. 많아서뿐만 아니라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24시간 살아가지는 데도 힘이 없이 하고 있구나. 우린 여덟 뛰고 있었는데 똥 사이가 없구나.’ 하는 겁니다. 똥 사이가 없습니까. 여러분은 얼마나 묘한 도리로써 사십니까? 오늘 일을 하시는데도 그냥 눈이 이거 보고 저거 보고 조거 보고, 그래서 마음공부를 하신다면 진짜 내면에 공마당을 크게 만들어 놓고 공치기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진짜 마음공부를 한다면

내면에 공마당을 크게 만들어 놓고
공치기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가지곤 “너희들 불씨 얻으러 간 예가 있느냐, 없느냐?” 하고 모두에게 물었어요. 한 사람도 얻으러 간 예가 없더라 얘기도. 그래서 조그만 도량이니 이거 안 되겠구나! 그러곤 방마다 열어서 조사를 했어요. 근데 나한 방 맨 끄트머리에 앉아 있는 동자 입술에 팔죽이 묻어있더라고요. 그것을 보고서 그 주지 스님은 ‘아! 밤이 이렇게 추대하고 이렇게 묘하고 이렇게 광대한 것을 우린 몰랐구나!’ 이렇고하신 그 나한

이 도리가 어렵다고 하지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우리가 24시간 살아가지면서 고통만 게 하나라도 있습니까? 이거 보면 저거 봐야 하고 저거 보면 이거 봐야 하고, 이거 들으면 저거 들어야 하고 이 사람 만나면 저 사람 만나야 하고, 이러 가면 저러 가야 하고, 매사 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내가 했다, 내가 살고 내가 망했다 이런 말을 할 수 있었습니까? 합이 없이 그냥 찰나찰나 화해서 돌아가는데 어떻게 그걸 산다고 하고 했다고 내가 한다고 하겠습니까? 그 도리는 정신계와 물질계가 같이 호흡해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정신계와 물질계가 같이 돌아가지 않는다면 이 몸통이 없겠지요. 우리는 지수화풍에서 나왔고, 또 지수화풍이기 때문에 지수화풍을 먹고 살아요. 먹고 살고 또 요다음에 갈 때 지수화풍으로 돌아가니 다 갖는 거지요. 이렇게 정확해요. 하나하나 살아나가는 전부가 말입니다.

이 모습은 물질계입니다. 그리고 불 수도 쉼 수도 말할 수도 없지만 자기가 이렇게 살아 있는 이상 정신계는 자기한테 있던 얘가지요. 그거는 없다 있다가는 논의할 필요도 없죠. 그냥 가지고 있으니까요. 자기가 살아 있으니까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불성이라고 하죠. 불성인데 그 불성을 거꾸로 한번 말해 보세요. 성불입니다. 불성을 거꾸로 한번 말해 보시면 성불이예요. 그래서 ‘성불과 불성이 둘이 아니다. 네가 너무더 찾아라. 너무더 믿고 찾았다면 내가 이 자리에 다시 나와서 부모 자식 형제 인연을 짓고 세세생생 고생 안 하고도 훨훨 벗고 자유자재할 수 있느니라.’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응! 하고 나오면 죽는 날까지 그 기간을 채우려고 살아나가는 겁니다. 죽으러 말입니다. 근데 산다는 것이 죽으러, 기간을 채우러 가는 것이라 한다면, 그 미리 좀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미리 좀 죽으면, 삶이 없이 산다면, 하는 바가